

찬양으로 하느님께 영광

지역별 각종 음악회·찬양대회 개최

가르멜 수녀원 돕기 자선 음악회



가르멜수녀원돕기자선음악회장면.

【펜실베이니아】 지난달 30일, 필라델피아 홀리앤젤스 성당(주임 이효연 신부)의 특전 미사 성가대(Constantia)가 가르멜 수녀원 돕기 자선 음악회를 가졌다.

동 성가대가 지난 2011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조금이라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시작한 가르멜 수녀원을 위한 자선 음악회가 2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효연 신부의 기도와 강복으로 시작된 이번 자선 음악회에는 곳곳을 날씨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뉴저지에서 온 한 신자는 좋은 곡, 어렵고 수준 높은 곡들을 잘 소화해 냈다면서 아주 훌륭한 연주회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미국 분은 언제 얼마나 모여서 연습을

하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가 있나 감탄하며 이렇게 훌륭한 연주회를 한번만하고 끝내는 것이 너무도 아깝다고했다.

현재 동 성가대는 '가르멜 수녀원을 위한 자선 음악회' 만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도 자선 음악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주위에 어렵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다음 날인 31일 전액 수녀원에 전달되었으며 수녀원측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